

— 학술제 프로그램 소개 글 —



장기자랑

여러분 운동계 회만하고 못하는 부분 인정?
어~ 인정 장기자랑 공연보고 오지게 웃어서
살 빠진거 실화? 날이 오지는 목요일에 봐요 ~



연극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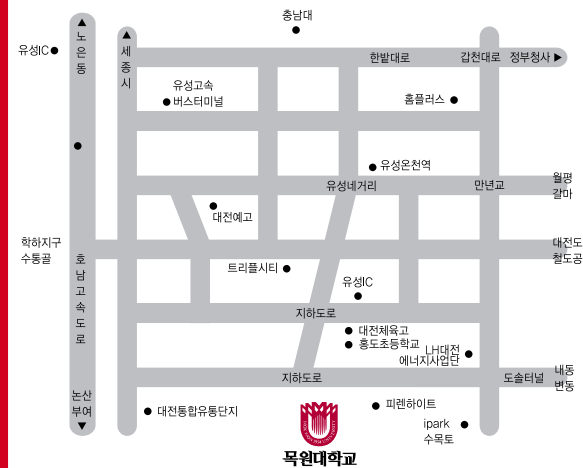
어여쁘고 사랑스러운 은아 백설공주~
멋있고 잘생긴 규원 왕자의 러브스토리 대공개!
귀요미 인기쟁이 일곱 난쟁이의 재롱도 볼수 있는
백설공주 보러오세요~



연극2

학창시절 유행했던 드라마 꽃보다남자
우리 중국학과에도 F4가?!! 추운겨울 뜨겁게 녹여줄
꽃보다남자 4인방 지금 만나보시죠~!!

목원대학교 오시는 길



2017학년도

중국학과

학술제
9th

일시 | 2017년 11월 30일(목) 10:00
장소 | 목원대학교 사범대 U408호 계단강의실
주최 | 중국학과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목원대학교 중국학과
<http://mokwon.ac.kr/china>

— 행사 순서 —

1부

- 학술 발표대회 중국학과 1,2,3,4학년 재학생

2부

- 학술제 개최식 사회자(이경란, 마병욱)
- 중국학과 학과장님 축사 허흥호 교수님
- 중국학과 학생회장 인사말 김승준(12)
- 학술제 준비영상 매드피디(광고학과 동아리)
- 합창(男人女人) 최현우(12) 외 21명
- 연극2팀(꽃보다남자) 박 진(12) 외 15명
- 장기자랑 남호진(12) 외 14명
- 깜짝퀴즈 사회자
- 연극1팀(백설공주) 한규원(12) 외 16명
- 합창(I Believe) 최현우(12) 외 21명
- 시상식 및 폐회사

— 학과장 인사말 —



안녕하십니까?
목원대학교 중국학과 학과장 허흥호 교수입니다.
역사학과와 광고홍보언론학과 그리고 중국학과의 'Neo K-Culture 킬러콘텐츠 개발 인재양성' 사업으로 특성화를 추진한지도 벌써 4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준비과정에서 서툴렀던 점도 있었지만, 미디어문화콘텐츠 전공이라는 교육과정을 통해 많은 발전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합니다. 특히 3개 학과가 각각의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교육의 내실을 기해왔다고 평가합니다. 그 가운데 중국학과 주관으로 실시되는 한중학술제는 그동안 우리가 강의실에서 배우고 익힌 것을 학술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표현한다는 것은 우리사업단의 대표적인 성과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부족한 가운데서도 무엇인가를 꼭 해내고야 말겠다는 의욕으로 준비한 학생들의 노고에 위로를 드립니다. 특히 학술제의 전 과정을 철저히 기획하고 준비한 중국학과 학회장의 수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학술제에 참가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격려를 보내며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중국학과 학과장 허흥호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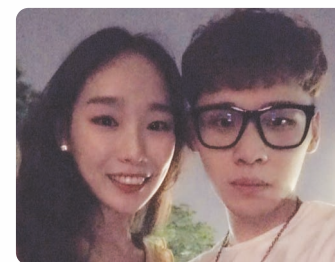
— 학회장 인사말 —



안녕하세요
제 19대 중국학과 학생회장 12학번 김승준입니다.
올 해 초 겨울 신입생 O.T를 시작으로 따듯했던 봄과 무더웠던 여름을 지나 벌써 가을인 듯 겨울 같은 11월이 되었습니다. 약 10개월간 바쁘게 달려왔던 중국학과 학우 여러분들 이제 2017년도 한 달 밖에 안 남은 가운데 지금까지 학습했던 것을 바탕으로 제 9회 학술제를 진행함으로써 소중한 추억과 인연을 남기고 올해 중국학대로써의 모든 행사를 마무리 하려 합니다. 매년 중국학과의 마지막을 알리는 학술제가 벌써 올해로 9회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항상 제 옆에서 도와주고 힘이 되어준 우리 19대 학생회장님들, 그리고 학술제 준비기간 동안 수고해준 학우분들을 이끌어 주신 교생한 대표학생들, 다들 각자 바쁜 와중에도 열심히 연습하고 준비해준 모든 학우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응원해주신 교수님들과 조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 열심히 준비한 만큼 자신들의 가량을 마음껏 뽐내고 다 같이 웃고 즐기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제 9회 학술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 11월 30일 19대
'All For You' 중국학과 학생회장 김승준

— 학술제 프로그램 소개 글 —



사회자

중국학과 학술제에 사회자로
참가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중국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합창

모두가 부르는 노래,
우리가 쉽게 따라 부르며 즐길 수 있는 노래,
모두의 목소리가 모여 흥에 겨운 하모니를 만든다.
함께해요!